

# 전북대 LINC사업단 산업체 교육 호응

## 현장 찾아 공정개선·제품개발 등 기술혁신 주도형 교육 진행... 하반기 77건 실시 계획

전북대 링크사업단이 가족회사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지원 사업을 펼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7일 전북대에 따르면 LINC사업단은 지난 2012년부터 산업체 재직자 교육을 열어 올해까지 모두 23건의 교육을 지원했다.

사업단은 기업체를 직접 찾아 현장 개선에서 제품개발, 공정개선과 같은 기술혁신 주도형 교육을 진행한데 이어 기업체에서도 정기적으로 대학을 찾아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소통과 같은 조직 활성화 교육 등을 받으며 산학협력의 좋은 사례를 남기고 있다.

특히 열악한 기업 여건상 재직자들에게 대한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지 못하는 기업들에게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재교육의 장을 열어주면서 대학과 기업들이 상생하는 방안이 되고 있다.

사업단은 이러한 기업들의 호응도를 적극 반영해 올 하반기에 77건의 재직자 교육을 마련해 지원을 크게 늘리고 있다.

하반기 교육 시작으로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전북대에서 '공정품질관리사 국제 자격증 취득과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독일 정부 산하기관인 DAKKS에서 승인한 저먼씨트와 연계한 국제 자격증 취득의 기회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핵심인재 발굴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가족회사의 품질개선



통합 전주시체육회 창립 대의원총회

통합 전주시체육회 창립 대의원 총회가 7일 전주시 효자동 파티하우스에서 열린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등의 경쟁력 향상이 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사업단에서는 가족회사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오토캐드(AUTOCAD), 카티아(CATIA)와 같은 설계전문가 양성 교육과 생산관리사 국제자격증 취득 과정 및 해설

(HACCP) 전문가 과정 등 생산·품질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대 LINC사업단 가족회사 홈페이지(<http://fc.jnu.ac.kr>)를 통해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다.

설계원 LINC사업 단장은 "가족회사

의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통한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속적으로 돕는 것이야말로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실현하는 지름길"이라며 "향후 가족회사를 위한 전문교육을 다양하게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인형기자

# 전주시, 동네빵집 새로운 이름 공개 모집

## 15일까지 접수...19일 홈페이지 통해 당선작 발표

오랜 역사와 추억이 깃들여 있는 우리 지역에 동네빵집의 새로운 이름을 모집한다.

전주시는 전주동네빵집협동조합의 가치와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브랜드 네이밍 및 로(브랜드 이미지) 디자인을 오는 15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전주동네빵집협동조합은 지난 5월 동네빵집을 비롯한 골목상권 활성화와·자주적·자립적·자치적 협동조합 활동으로 지속적인 지역순환 경제 조성을 위해 창립된 공동체다.

특히 전주 영화의 거리에서 60년을 지켜오다 문을 닫은 '동그라미 제과'의

전통과 추억을 이어가기 위해 결정됐다.

이번 브랜드 네이밍 및 로 디자인 공모에서는 '동그라미'와 '동네빵집' 등 핵심키워드를 이용해 함께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전주동네빵집 협동조합만의 정체성을 표현하면 된다.

출품은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www.jec.or.kr](http://www.jec.or.kr))에서 내려받은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심볼마크와 로고타입의 작품파일 등과 함께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je47@jec.or.kr](mailto:je47@jec.or.kr)) 또는 직접 방문접수(전주시 완산구 물왕말3길 29)하면 된다.

수상작 발표는 오는 19일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며 최우수상 1편과 우수상 3편에는 각각 100만원과 1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당선작은 '전주동네빵집 협동조합' 관련 상품 제작 및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

전주시 공동체육성과 관계지는 "현재 전주푸드 시범직매장 2호점(구 효자동 주민센터)에 입점해있는 '전주동네빵집 협동조합'이 네이밍 및 로 선정으로 더욱 번영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 전주시, 곤지산 등산로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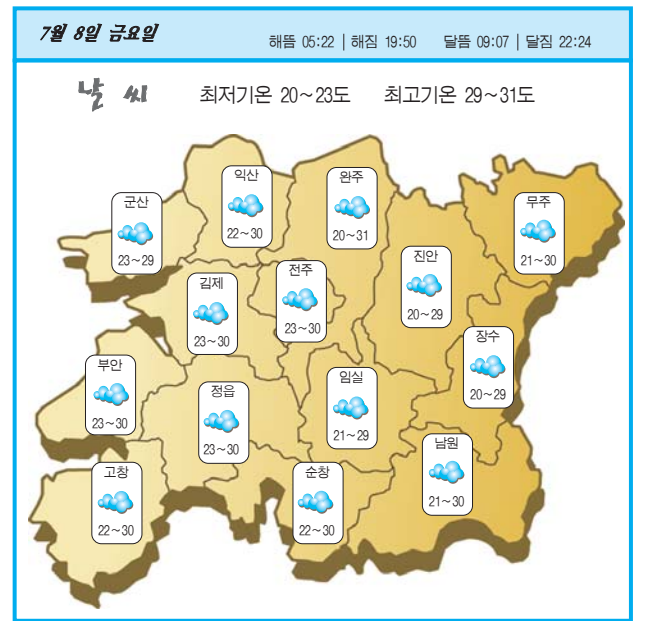
전주시가 도심 생활권 등산로를 시민들이 문화와 역사 등을 만끽하며 걸을 수 있는 친환경 숲길로 조성한다.

전주시는 올해 총 4억8000만원을 투입해 완산동 곤지산에서 완산꽃동산 일원 1.5km 구간 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시는 이팝나무 군락지 복원 등 곤지산 초록바위 주변의 경관을 개선하고, 과거 천주교 순교지이자 동학농민혁명 지도자인 김개남 장군이 참혈을 당한 역사적 의미도 담겨있는 초록바위 일대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문화 숲길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진입 데크를 설치하고 초록바위 정상에 전망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등 의자와 조형벤치 등을 설치해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영재기자



# 전교조 전북지부, 김 교육감 징역형 반발

## 학교 폭력 기제는 "학생을 전과자로 낙인찍는 것" 주장

김승환 교육감이 징역형을 구형 받자 전교조 전북지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본보 7월 7일자 2면)

김 교육감은 지난 6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된 교육부 감사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구발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 구형을 받았다.

이번 기소건은 2012년 교육부가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으로 학교폭력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라는 것에 대해 전교교육감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시한 사안이다.

이날 전주지법에서 열린 심리에서 검찰은 김 교육감에 대해 "학생부 기재 이행 실패 점점에 대한 교과부의 정당한 감사에 맞서 피고인의 위법·부당한 지시로 일선 교육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했고, 직원과 학교장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 변호인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 징계 의결 등 학교폭력 사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있는 자료만을 거부토록 지시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4년이 지난 지금 교육부의 조치가 잘못됐음이 밝혀져 검찰이 기소를 취소했어야 옳은 것"이라며 "그런데도 검찰이 김 교육감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한 것은 권력의 양지만을 쫓는 해바라기 정치검찰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9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김 교육감은 최후 변론에서 "학생부 기재 실패 학생의 폭력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징계에 그치지 않고 학생의 앞길을 영원히 막아버리겠다는 것"이라며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검찰이 김 교육감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비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학교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은 학생을 폭력전과자로 낙인찍는 것"이며 "국가인권위도 심각한 인권침해로 간주해 시정 권고를 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4년이 지난 지금 교육부의 조치가 잘못됐음이 밝혀져 검찰이 기소를 취소했어야 옳은 것"이라며 "그런데도 검찰이 김 교육감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한 것은 권력의 양지만을 쫓는 해바라기 정치검찰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9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고인형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http://www.jjmaeil.com)

구독·광고문의 288-9700

